

포스코, LED부품 원천소재 “도전장”

계열사 삼성P&A, 초고순도 알루미늄 개발 ... KC와 협력 MOU 체결

포스코그룹이 LED(Light Emitting Diode) 부품의 원천소재 사업에 진출한다.

포스코의 계열사 삼성P&A는 LED 발광칩을 만드는 데 쓰이는 사파이어 단결정의 원천소재인 초고순도 알루미늄(4N, 99.99% 이상) 개발 분야 등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KC와 맺었다고 9월9일 발표했다.

K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 원광석인 보크사이트를 이용해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순도(3N, 99.9%) 알루미늄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3N 알루미늄보다 한 단계 높은 4N 알루미늄을 개발에 성공하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원천소재의 수입대체 효과 등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포스코그룹 관계자는 “삼성P&A는 사파이어 웨이퍼 제조기술과 생산규모가 세계 3위 수준이고,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세계시장 규모는 10년 이내에 2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사업 진출에 의미가 있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9/09>